

담양군, 죽녹원 등 6곳 추석맞이 무료개방

담양군이 추석 당일인 오는 24일 군 관리 유료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 이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출향인, 관광객들에게 추석 당일 담양의 대표 관광 명소를 무료 개방해 보다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무료개방 대상 관광지는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랜드, 소쇄원, 한국대나무박물관, 한국기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 등 6곳이다. /봉채영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파라과이 대사 접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라울 실베로 실바그니 주한 파라과이 대사를 접견하고, 소방차량, 장비, 기술 교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한국과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면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소방차량 지원, 파라과이 소방관 광주교육 등으로 인연을 맺게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소방본부는 재난,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번 교류에서 양국이 서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라울 실베로 실바그니 대사는 "광주시가 그동안 소방차량과 장비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장비, 기술 교류 등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파라과이에 소방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라울 실베로 실바그니 주한 파라과이 대사를 접견.

프차·물탱크차·구급차 등 총 6대를 무상 지원하고 현지 교육으로 대형화재 진압 등에 도움을 준 바 있다. 또 2019년에도 8대 등을 추가 양여할 계획이다.

또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방한한 파라과이 소방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소방학교에서 구급훈련과 화재진압훈련 등을 하고 있다.

/봉채영 기자 bcy2020@

이재명 경기지사, 추석 민생소통 행보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추석을 맞아오는 17일 오후 수원 영동시장과 뭇골종합시장을 찾아 민생소통 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의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대형유통기업의 경영학장과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 구석구석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상인 및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 지역 서민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계획이다.

이어 시장 내 상인회 강당에서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경기남부권역 상인회장 등 80여명의 상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견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이 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 전역 지역화폐 도입 확대, ▲(가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경기도형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및 골목형 시장 중점 육성 등 '민선7기 골목상권 5대 공약'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당부할 방침이다.

/김승열 기자

인천시, 추석연휴 민자터널 3곳 통행료 면제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문학, 원적산, 만월산 3곳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석 전날인 23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에 문학, 원적산,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곳들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민자터널이다.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

책'에 따라 추석 연휴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시에서 운영하는 민자 터널은 대상이 아니지만, 이동이 많은 명절동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3일 동안 3개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약 22만대 이상의 차량이 1억7천만 원의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영주 기자 choiyj@

경기도 '민원조정관' 도입

원스톱서비스로 핑퐁민원 제거

'언제나 민원실' 내달부터 시행 사후관리까지… 질적향상 기대

경기도가 접수민원에 대한 부서 간 끈기기(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민원실'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조정관은 언제나 민원실에 배치 돼 ▲1:1상담을 통한 담당부서 협의 대행

▲처리 과정 안내는 물론 불명확한 민원 내용에 대한 보완 지원 ▲주관부서 조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화신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러 담당부서가 관련돼 있는 대부분 민원의 경우는 민원인이 담당부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민원조정관이 이를 대신한다.

경기도는 민원조정관이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민원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10월부터 우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 전경.

선 전담인력 3명을 민원조정관으로 시범 배치한 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민원조정관 도입과 함께 도는 언제나 민원실을 열린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 민원 처리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 민원실 업무가 외교부 대행 사무인 여권민원에 치우치면서 본연의 업무인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는 조직개편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던 언제나민원실의 근무시간을 월, 수, 금은 18시, 화요일과 목요일은 21시 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민원실을 운영했지만 야간 이용 민원이 극히 적어 효율성 측면에서 24시간 운영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야간(전일 22시~다음날 09시까지) 시간을 이용한 민원은 평균 22건으로 일평균 297건의 7.4%, 특히 초 심야시간인 자정에서 아침 9시까지는 4.7건(1.6%)에 불과했다. 이용자 역시 대부분 수원과 화성, 용인 등 특정지역에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경기도 환경기업 “中·越 진출” 방안 모색

글로벌 환경산업협력 포럼 개최

중국 5개 등 환경기업과 무역상담회

경기도가 환경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과 베트남의 지방자치단체를 초청,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도내 환경기업의 수출도 지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13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중국 산시성과 염성, 베트남 박닌성 소속 공무원과 기업인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18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산시성 왕원(王文) 환경보호청 부순사원, 염성 성얼창(成昶) 환보과기청 관리위원회 상무총국 국장, 박닝성 응웬 다이 동자원 환경국 부국장 등 환경관련 공무원과 해외기업인이 참가했다. 도에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연희 환경국장 등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자 및 환경분야 전문가, 우수 환경기업인, 학생 등 350여명이



경기도청 전경.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산시성은 경기도와 환경산업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박닌성은 도와 환경협력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했다.

포럼은 경기도와 동아시아 각 지방정부의 환경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베트남의 환경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정책세션'을 시작으로 ▲'중국 환경규제 및 감독강화에 따른 한중 환경기업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한중협력세션' ▲베트남 물오염 해결방안을 위한 국내 사례공유 및 협력에 대한 한베협력세션 ▲도내 환경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성공사례와 녹색환경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우양이엔지, 에이스엔 등 도내 20개 환경기업과 산시환경산업 그룹 유한책임공사, 산시 대진 환경과학기술유한공사 등 중국 5개 환경기업, 투안타인 등 베트남 5개 환경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도 열렸다.

/김승열 기자

광주 서구, 맞춤형복지 전담차량 확대… 이달 말까지 보급

광주 서구가 6개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보급한다.

서구는 13일 효율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9월 말까지 6개동 주민센터에 복지전담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복지차량은 찾아가는 방문상담, 생활실태 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복지업무 수행에 있어 기동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까지 12개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보급한 서구는 이로써 18



6개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보급.

개동 모든 주민센터에 복지차량을 확보하게 됐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으로 신속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채영 기자